

흩어지기로 결심하다!

사도행전 8장 1-4절

- 1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 2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 3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넣기니라
- 4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 인트로 | 미디어 교인과의 화상 대화(?)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인 앤 아웃’과 ‘미디어교회’는 세상에 없던 교회를 꿈꾸며 시작한 일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에 없던 교회’란 어디에서 툭 튀어 나온 이상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위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radical’이란 말을 참 많이 써왔습니다.

또한 여기서 ‘래디컬’이란 말 역시 ‘과격한’이라는 의미 보다는 ‘본래’ 혹은 ‘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 해 왔습니다.

참 신기하죠? 뿌리를 찾아서 본질을 찾아가려고 하면 많은 수난이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사실 종교개혁 역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모토로 인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한 일이니 말입니다.

지난 해 동산지기들을 격려하기 위해 함께 대만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의 품격은 어떤 가이드를 만나느냐에 따라 참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설명하고 안내하고 친절한 가이드를 만났습니다.

딱 한 가지 너무 잘난 척 하는 것만 빼고 말입니다. 첫 만남에서 가이드가 그러더군요. 대만에는 딱 세 사람의 ‘국보급 가이드’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한사람이 본인이라고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셋 중에 하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한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더군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우리 만나교회가 꿈꾸는 중요한 사역 ‘흩어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위대한 세 개 교회 중에 하나가 되리라는 것이죠.

하나는 초대교회 역사 속에 존재했고,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지금 만나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말은 잘난 척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교회를 꿈꾸며 시작하는 사역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언젠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다가 전혀 새롭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한 구절이었습니다. **본문 1절.**

사울은 그가 죽일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의 역사는 사도행전 2장의 성령강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문도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2 흔연히 하늘로부터 금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 마치 불의 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역사로부터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소통’ 즉 말씀을 나눌 수 있는 ‘communication’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부터 와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5 그 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아마도 흩어진 유대인들이라 불리는 ‘디아스포라’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앗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다하고 난 후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사에 의해 근동 지방이 통일 된 후에는 새로운 제국의 ‘포용정책’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 땅에 머물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찾아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오랜 타국 생활로 인해 언어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부활하신 ‘구원역사’를 알리기 위해서는 언어의 소통이 필요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이들이 처음으로 한 일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큰 구경거리가 되었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4절.**

14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구약의 예언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자, 이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은 이가 삼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1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흥미로운 것은 이 때 세례를 받은 이를 '신도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초대 교회 공동체에 삼천 명의 숫자가 더해졌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커다란 교회의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모여서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이루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43절.**

42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땀을 뻘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3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 때 나타난 기적 중에 첫 번째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나면서 못걷게 된 이'를 일으킨 사건이죠. 문제는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지만 시기하는 자들 때문에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1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2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3 그들을 잡으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4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더라

그런데 이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과 말씀 전함을 통해 예수를 믿는 남자의 수가 '오천'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당시 추정하는 예루살렘 인구 8만 중 10%의 사람들이 교인이 된 것이죠.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을 감당할 수 없어서 부작용들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을 돌보는 목양을 사도들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자신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 일곱 명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벌써 조직적인 교회 사역이 시작된 것이죠. 그 결과로 일어난 일을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까지 사도행전은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모였는지를 드라마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나서 예수를 믿고 따랐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곱 집사 중 하나였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는 것은 팝박을 받는 일이 아니라, 그 팝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기적들을 보면서 그런 상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돌을 던지는 자들을 아주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스데반의 돌에 맞아도 상처 하나 입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남아야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부흥하던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택함 받은 일곱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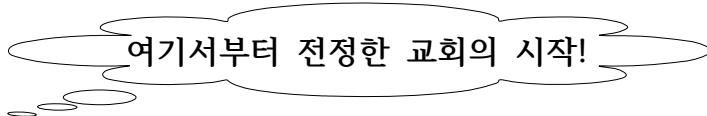
/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
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사도 외에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라고 되어있는데 문법상 **‘수동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을 흩어지게 한 것이 누구인가? 라는 물음이죠.

박해가 이들을 흩었을까요? 그렇다면 이 박해는 왜 일어났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초대교회에 시작된 박해가 하나님의 계획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교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은 흩어진 사람 ‘빌립’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을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진정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시작!

교회는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인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죠. 3-4절 말씀.

3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넣기니라

4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사람들을 끌어다 옥에 가두었지만 그 박해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교회에 찾아온 팁박은 교회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하여금 살아있는 사역을 가능케 한다는 것.

또 하나, 교회가 모여서 자신들의 공동체를 돌보는 일에 전심전력하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흩으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는 “In & Out과 Media Church”에 대한 말씀은 어쩌면 교회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모습을 보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끼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사랑을 나누며,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에 만족하여 안주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레너드 스윗이라는 미래학자가 이야기 했던 것처럼 2천년 교회 역사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Missional Church에서 Ministry Church로

그리고 Maintenance Church에서 Museum Church로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얹지로라도 우리를 흘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이는 것이 중요하기는 한데, 왜 모이는지를 알지 못하면 주객이 전도되기 때문에 의미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흘어짐을 통해 교회가 살아 있음을 깨닫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2. In & Out / Media Church 설교 시 소개(안)

구분	내용	설명
In & Out	인앤아웃	모인 공동체가 흘어져서 예배 IN > OUT
	설교문	교회는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인 사람들이 흘어지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공동체이다.
	사례	1. 소망부에서 시각 장애인들을 섬기는 예수마음교회를 방문, 안 보이는 와중에도 서로를 위해 식사를 만들고 사랑을 나누면서 오히려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림. 2. 아이들 세 명을 데리고 인앤아웃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의 이야기. 자녀에게도 흘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며 산교육의 장이 되고 있음. 3. 추가 사례를 정리하고 있는 중(추후 다시 보고)

Media Church	미디어교회	흘어져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예배 OUT > IN (다시 교회 공동체로 연결)
	설교문	우리끼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자랑하는 교회 VS 건강한 공동체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 흘어져 있는,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
	사례	1. 눈이 잘 안보여서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미디어교회를 통해 예배에 참여, 그리고 현금의 기회가 열려 있어서 함께 동참 2. 군대에서 휴대폰이 보급되면서 교회가 없는 격오지에서도 함께 예배에 참여 3. 교회 문제로 교회를 오랫동안 떠났는데, 미디어교회를 통해서 신앙과 예배가 회복, 다시 교회로 등록하였고, 지금은 교회 봉사, 선교까지 참여하게 됨 4. 점점 늘어나는 가나안 성도 / 그 성도들에게 미디어교회와 온라인나무를 통해서 다시 교회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의 중간 다리 역할 감당 5. 산후조리원, 직장인, 교대근무자(간호사), 중환자실, 암환자, 해외 각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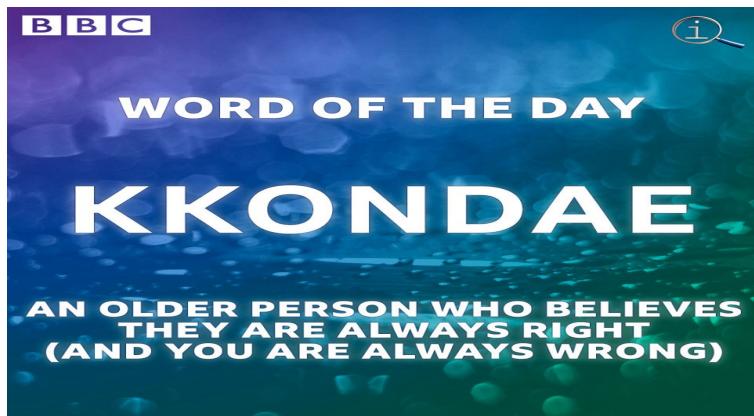
저는 오늘 한국 교회에 ‘쓴 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맘에 드는 이야기, 누구나 하고 싶은 일들, 자신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는 것, 해야 할 것들보다는 하고 싶은 일만 하려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아니, 사람이 아닌 이런 교회가 되어 버리는 현실 가운데 쓴 소리가 들려져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설교의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이런 쓴 소리는 어디에서 갑자기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처음 교회를 세우셨던 주님이 지금의 교회를 보면서 아주 준엄하게 꾸짖는 소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2019년 마지막 주말인 12월 28일 조선일보 [주말의 리포트] 섹션에 ‘꼰대와 멘토의 차이’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BBC는 2019년 9월 23일 오늘의 단어로 'kkondae'를 한국어 발음 그대로 선정해서 올렸다.

일반적으로 꼰대는 ‘50대 남자’ 중에 제일 많으며, ‘라떼는 말이야~~’라는 유행어를 만든 장본인들이죠.

사실 저 자신도 목회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혹시라도 이들에게 “나 때는 그랬다”는 말로 꼰대가 되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설교를 하는 것도 잘못하면 잔소리가 될 수 있다는 염려로 시작했지만 사명이 주는 확신을 점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문에 실린 설문에 의하면 20~30대 2000명에게 물었을 때, ‘꼰대’는 싫지만 ‘멘토’는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이 70%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꼰대와 멘토를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으로 ‘말하는 방법’과 ‘경청’에 있다고 답한 사람이 64%에 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꼰대와 멘토를 나누는 기준은 ‘꼰대는 자신의 과거만을 말하고 멘토는 미래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젊은 세대들에게 진정한 멘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진짜 염려하며 미래를 열어줄 멘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하다면 쓴 소리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꼰대가 아닌 멘토가 되어야 한다는 심정으로 쓴 소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하다면 그 길을 가기 위해 길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사역에 참 필요한 성찰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흩어지는 교회 사역에 있어서 적용점이 있으리라 생각이 드네요.

다음의 원칙들은 목회자들을 위해 교육했던 내용들입니다.

원칙 1: 어쩔 수 없는 일이란 없다.

이 말은 ‘우선순위’와 관계된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이 없다면 정말 인생을 잘못 사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 이 생길 때죠.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베스트셀러를 낸 짐 콜린스는 성공법칙으로 ‘철저한 시간관리’를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철저하게 블랙베리에 내장된 세 가지 타이머가 있는 스톱워치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창조적인 일> 50%, <가르치는 일> 30%, <어쨌든 할 일> 20%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가 이렇게 엄격하게 시간을 관리하는 이유는 ‘시간을 비우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단순히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시간과 자원, 건강과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가는 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보여주신 교회의 원리가 분명합니다. 당시 교회는 박해를 피해 흩어지게 하셨다면, 지금 교회는 무엇을 위해 흩어져야 할까요?

역지로 하는 것보다는 자원해서 하는 일들이 더 기쁘지 않을까요?

원칙 2: 때론 머리가 아닌 가슴이 필요하다.

제가 세상적인 이야기를 해서 많이 죄송하지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무 나태하게 믿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주제가 ‘흩어지는 교회’가 되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된다는 것은 계산적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가슴이 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래전 [Weekly BIZ]에서 “성공한 협상이란 요구 사항을 최대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충족시키고 이를 통해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라는 글을 참 인상 깊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성공한 협상” - 두 개의 case study

#1. 1930년대 초, 미국 연구기관의 원장과 유럽에서 활동 중인 학자가 만났다.

학자를 미국으로 스카우트하기 위해서다. 원장이 조심스레 입을 연다.

“연봉은 얼마 드리면 될까요?”

학자가 말한다.

“3,000달러면 충분합니다. 이보다 생활비가 적게 든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잠시 고민에 빠진 원장이 제안한다.

“연봉 1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학자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2. 승자와 패자가 만났다. 종전협상을 위해서다. 패장이 입을 연다.

“어떤 요구를 수용하면 되겠소?”

패장의 머릿속엔 전쟁 포로, 전쟁 배상금, 전범 처리 이런 단어들이 그득하다. 승자가 말한다.

“요구사항은 단 하나입니다.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시오. 먼 길이니 타던 말도 그냥 가져가시오. 귀향하는 데 필요한 식량은 우리가 어떻게든 준비해 보겠소.”

패장의 눈시울이 붉어진다.

케이스 1번의 주인공은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세상 물정에 어두웠던 아인슈타인은 미국 교수의 평균 몸값 7000달러가 아닌, 유럽에서 받던 연봉 3000달러를 소박하게 요구한 것이죠. 이에 대해 프린스턴대의 플렉스너 원장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대우인 1만 달러를 제시하고 아인슈타인의 마음을 얻은 것입니다.

케이스 2번의 주인공은 남북전쟁 종전협상에 섰던 북군 총사령과 그랜트와 남군 총사령과 리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지난 5년간 많은 부하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남군을 철저하게 응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남군은 어떤 요구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랜트 장군은 ‘국가적 통합’이 ‘패자에 대한 복수’보다 더 큰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만나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단순한 일’이 아닌 가슴이 뛰고 뜨거워지는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이 뛰지 않는 일을 하는 것처럼 고달픈 것이 없을 듯합니다.

제가 종종 하는 말인데, 돈을 받지 않고도 기쁘게 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땅 위에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일에 당연히 가슴이 뛰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헌신이 힘든 수고를 넘어서는 기쁨으로 인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원칙 3. 필요한 고민을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라!

“우리의 문제는 선과 악에 대한 선택보다는 쉬운 일과 어려운 일 사이에서 고민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선을 선택하며 악에 승리하듯이 어려운 일을 선택하는 것이 쉽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 마음에 가까울 때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 그리고 앞으로 하려는 일들은 참 많은 고민 가운데 탄생된 사역들입니다. 필요한 고민이었기에, 올바른 선택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믿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우리는 ‘제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3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요 근래 아주 인상 깊게 읽은 책이 있습니다. 디트리히 본 회퍼의 『나를 따르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은 ‘값싼 은혜’가 아닌 ‘값비싼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가 그리스도께서 직접 선사하시는 기독교적인 삶의 ‘결과’라면, 이 삶은 한순간도 예수를 따르는 것과 떠려야 뗄 수 없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은혜가 나의 기독교적인 삶의 원칙적인 전제라면, 이는 내가 세상에 살면서 짓는 죄가 이미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셈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이 은혜를 믿고 죄를 지어도 될 것이고, 세상 또한 원칙적으로 이 은혜를 통해 의롭다고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종래와 같이 나의 속물적이고 세속적인 생활을 계속하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옛날 그대로 일 것이다. … 이를테면 세상 속에서 세상과 똑같이 살고 세상과 조금도 구별되지 않고, 실로 – 은혜로 말미암아! –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아도 되며, 그러면서도 적당한 시간에 세상의 구역에서 교회의 구역으로 찾아가 자기 죄의 용서를 확인받고, 예수 따르기의 숙적, 곧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는 것을 중요하고 모욕하는 값싼 은혜를 통해 예수 따르기를 면제받는 것이다. 전제인 은혜는 가장 값싼 은혜이고 결과인 은혜는 값비싼 은혜다.

이 일들이 우리들을 만나교회로 부르신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아닐까요?

십자가는 피해갈 수도 남이 대신 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이 내가 져야할 십자가라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누군가 참 무서운 말을 했더군요. 십자가를 질 때, 우리의 은혜를 값비싸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와서 죽으라’는 명령이라고 말입니다.